



우적가(遇賊歌)의 시대적(時代的) 배경고(背景攷)

A Study on Background of the Time in Ujeock-ga

저자
(Authors) 최성호

출처
(Source) [동악어문학 17](#), 1983.1, 325-342 (18 page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17](#), 1983.1, 325-342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악어문학회](#)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1565>

APA Style 최성호 (1983). 우적가(遇賊歌)의 시대적(時代的) 배경고(背景攷). 동악어문학, 17, 325-3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9 12:4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遇賊歌의 時代的 背景攷

崔 聖 鎬

目	次
I. 緒論	2. 佛教의 背景과 釋永才
II. 時代的 背景攷	III. 結論
1. 社會的 背景과 綠林君 子	1. 遇賊歌 背景의 概要 2. 遇賊歌 背景의 特徵

I 緒 論

三國遺事¹⁾에 傳하는 遇賊歌에 대한 記錄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永才遇賊

釋永才性滑稽 不累於物 善鄉歌 暮歲將隱于南岳 至大峴嶽 遇賊六十餘人 將加害 才臨刃無懼色 怡然當之 賊恠而問其名 曰永才 賊素聞其名 乃命□□□作歌 其辭曰

自矣心米 竟史毛達只將來吞隱日遠鳥逸□□過出知造 今吞茲未去遮省如 但非 乎隱焉破□主次弗□史內於都還於尸朝也 此兵物叱沙過乎好尸曰沙也內乎吞尼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藩陵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

1) 卷第五 避隱第八 永才遇賊

2)…東岳 語文 論叢 第十七 算

賊感其意 贈之錢二端 才笑而前謝曰 知財賄之爲地獄根本 將避於窮山 以後一生
何敢受焉 乃投之地 賊又感其言 皆釋劍投戈 落髮爲徒 同隱智異 不復蹈世 才年
僅九十矣 在元聖大王之世 讀曰

策杖歸山意甚深
綺紵珠玉豈治心
綠林君子休相贈
地獄無根尺寸金

以上の 內容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釋永才는 性品이 슬기롭고 財物에 얽매이지도 안했으며, 또 鄉歌에도
능하였다. 그가 晩年에 南岳에 隱居하러 가다가 大峴嶺에 이르러 六十餘
人의 도둑을 만났다. 도둑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칼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泰然하였다. 도둑들이 이상히 여겨 그 이름을 물으니 「永
才」라 하였다. 도둑들은 일찍부터 그 이름을 들은 바 있는지라 그에게 노
래를 짓도록 하였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제 마음에
모든 形貌은 모르려 하던 날
멀리 지나치고
이제란 술어서 가는 증이로다
오직 그릇된 破戒主를
두려워 할 形貌에 내 어찌 다시금 돌아가스,
이 칼에사 한 번 필림을 받으면
조흔 날이 고래 새리랴 여적 기뻐했더니
아아 오직 요만물한 善業은
새짐이 안되니이다.²⁾

제 心狀을

2) 梁柱東, 古歌研究, 解讀

도르코 지내면 날
오랜 동안을 지나치고
이깁랑은 隱居하러 가노라
오직 그르게 隱居하는 破戒主
(남이) 所有物을 내어도 틀러 취야 할 郎이
이러한 凶器로써 지내고는
좋은 날이 트이어 올까보나
야— 오직 내가 말한 착함은
安尙촌이 됩니다.³⁾

도둑들은 노래의 뜻에 感動하여 비단 두 필을 주었다. 永才는 웃으며 받기를 사양하고 말하되, 財物이 地獄의 根本임을 알았기에 지금 깊은 산에 피하여 人生을 보내고자 하거늘 어찌 이것을 받겠는가 하며 땅에 버렸다. 도둑들은 그 말에 더욱 感動하여 모두 칼과 창을 버린 후 머리를 깎고, 永才의 弟子가 되어 智異山에 들어가서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永才는 90세 가까이 살았으며 때는 元聖王 代였다.

讚揚하되

지팡이를 짚고 산에 들어갈 뜻이 깊었는데,
어찌 비단과 珠玉에 뜻이 있으랴,
綠林君子들이여 財物을 주지 달라,
地獄은 다름 아닌 寸金이 根本이 되네.

그런데 이 〈遇賊歌〉는 記錄뿐만 아니라, 歌謠 自體內에도 缺字가 있고 하여, 解讀이 아주 난해하여, 여러 學者들의 구구한 解讀이 있을 뿐, 제대로 이 歌謠의 理解와 實體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參考로 그동안의 여러 學者들의 解讀을 一瞥하면 다음과 같다.

自矣心末

저의 마음애⁴⁾(7)

3) 金俊榮 獨歌文學, 盤雲出版社, 1980, p. 169.

4)…東岳語文陰集 第十七輯

- 계 ㅅ스래⁹⁾(ㄴ)
- 나이 ㅅ스래⁹⁾(ㄷ)
- 저의 ㅅ스래⁹⁾(ㄷ)
- 저이 다잡다이¹⁰⁾(계 마을에) (ㄷ)
- 저의 ㅅ스래⁹⁾(ㅂ)
- 저이 ㅅ스래¹⁰⁾(ㅅ)

- 克史毛達只將來香隱日遠鳥逸□□逸出知遊
 깃 ㅅ을단은 해(日) ㅅ오일어 나아고(ㄱ)
 중 모질러전 날 머리 디나치고(ㄴ)
 몽(조시) 모두라 응돈은 저프(저든)
 을 느리(日) 디나 알고(ㄷ)
 죽 몰아(줄 물라) 오든 늘 멀오(날이 멀오) 을운(어린) 려물 디내고(ㄷ)
 죽이 ㅅ을 알기 올라니(얼굴 뜻알게 을 붙착기) 멀오일 서산 디나간 알고(을을
 해 머인 서산 지남 알고)(ㄷ)
 즈시 모들아 오든 날 ㅅ오일?? 디나치고(ㅂ)
 죽 모주락 디내오든 날 멀 색 들(드회) 디나치걸(ㅅ)

今香蕊未去遊省如

- 열단 술에 가고소다(ㄱ)
- 열걸 수매 가고소다(ㄴ)
- 꺾든 드레 가고소다(ㄷ)
- 일은(이제는) 술어 가고소다(ㄷ)
- 열의 다니 수매 가고소다(이제 숨으로 가고소다)(ㄷ)
- 열든 수매 가고소다(ㅂ)
- 여든 드레 가겨살다(ㅅ)

但非乎隱焉波□□主次弗□史內於都還於戶朗也

-
- 4) 小倉進平 解讀(ㄱ)
 - 5) 梁桂葉 解讀(ㄴ)
 - 6) 池恩英 解讀(ㄷ)
 - 7) 李 紅 解讀(ㄷ)
 - 8) 金源環 解讀(ㄷ)
 - 9) 金俊榮 解讀(ㅂ)
 - 10) 徐在克 解讀(ㅅ)

(小倉氏 解讀 없음)

오직 외은 破戒主 저불 쓰애 누의 쓰 들러(ㄴ)
 다워은은 바워숫(이ㅅ)블 니사누어 셔불 들얼 나뢰(ㄷ)
 저불은(뒤질원) 破戒主 즈불 좇아 눈에 돌아라(ㄷ)
 단비고 숨안 바제류(범비고 숨은 破戒主) 저불이 사나오도 들을 사나히라(무서
 운 얼글 사나워도 들리실 사내로다)(ㄹ)
 오직 외은 숨인 破戒主 저불이사 너어 도도르힐 郎奴(ㅂ)
 다른 외은 破戒主 저불(잇) 누오도 들을 랑야(ㅅ)

此兵物叱沙過乎尸曰沙內乎吞尼

이 兵物을사 지나오 어말하기 불나 은단애(여)(ㄱ)
 이 잠물사 더내은 도홀날 새누오싸니(ㄴ)
 이 들들사사(아) 피을(맞은) 니사(닛사) 어누오다니(ㄷ)
 이 불들 물 가온(이 밖에는 도르매) 도홀 돌 물 누오둔이(모르던 것)(ㄷ)
 이 잠갈사 더내고(이 흥기야 지나치고) 길갈 날 사야나온다니(길건 날이 세어
 을 끌짜기)(ㄹ)
 이 잠갯사 더내은 도홀날 사여 누오뚜니(ㅂ)
 이 잠개사 글은 도홀 ㄹ름사 이아누은뚜니(ㅅ)

阿耶唯只伊吾音之叱愼隱潛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

아겨 절잔흔 ○陵은 어너 놀죽(이) 두오내이다(ㄱ)
 아으 오지 이오맛힐 善은 안디 새집 도외니다(ㄴ)
 아으 어제 내 소릿ㅅ 하는 소름안ㅅ 수룩(술)오니다(ㄷ)
 아라 오즈 이나잇 恨은 소름은 안드 순티 도은이다(어디다가 상기 두고 있는
 가)(ㄷ)
 아겨 들음엘 잔 이른은(아사라 이뵈 쓴 어질은) 아디 놀간 질드고 숨은이다
 (어디 높으신 집에 두고 숨단달고)(ㄹ)
 오직 이내 소릿힐 이든은 안^ㅅ尙宅 도은이다(ㅂ)
 오직 이노잇 恨은 서른 안히 안죽 도오니다(ㅅ)

이와 같이 區分한 解讀으로 이 歌謠의 完全한 理解가 現在로선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이 作品이 生成된 時代的 背景을 考察하여 綠林君子라고 일컫는 도독매들과 作者인 釋永才를 考究하고 아울러 이 作品 속에 담겨진 新羅人의 精神世界를 생각해봄으로써, 이 作品을 理解

해 보고자 한다.

Ⅱ 時代的 背景考

1. 社會的 背景과 綠林君子

遇賊歌는 作者 釋永才가 元聖王代(785~798年) 사람이라 하니 新羅 下代에 지어진 것이다.

羅末 麗初의 史家는 新羅의 歷代를 三大分하여 始祖로부터 眞德女王까지의 二十八王을 上代라 하고, 二十九代 武烈王으로부터 三十六代 惠恭王까지의 八王을 中代, 三十七代 宣德王으로부터 五十六代 敬順王까지의 二十王을 下代라 하였다. 上代 二十八王은 所謂 聖骨系統이고, 그 以下는 다 眞骨系統에 屬하나, 特히 中代 八王은 純粹한 武烈王系統, 下代 諸王은 遠代傍系王族의 出身들이었다. 이 三代의 구분은 單純히 王家의 血統(父系) 여하에 따른 구별인 것 같지다는 그보다는 國家的 政治的 立場에서 볼 때, 國勢의 變遷段階의 區別이 되는 것이다. 곧 上代는 新羅의 勃興期로 三國時代에 屬하고, 그 以下는 大개 統一期에 相當하나, 特히 中代는 全盛期, 下代는 衰退期에 屬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新羅의 統一期는 中代의 文武王 十六·七年頃으로부터 下代의 眞聖女王 五年에 이르는 約二百十五·六年에 不過하고(그 前後는 鼎立 分立), 衰退期는 실상 中代의 末인 惠恭王 때로부터 始作된 것이다.¹¹⁾

그러하여 下代는 貴族의 跋扈, 黨爭의 弊習이 생기어 王位 爭奪을 중심으로 陰謀 叛逆 骨肉相殘의 亂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狀態는 中代末의 惠恭王으로부터 下代의 惠康王(第四十九代)까지 계속되다가 眞聖女王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적국적인 動亂을 보게 되었다. 惠恭王은 王族 金志

11) 李丙京, 『國史大綱』 白蟻社 1948, pp. 135~136. 參照.

貞 等の 反亂에 王妃와 더불어 같이 살해되고, 志貞 等の 亂은 上大等 金良相, 伊淩 金敬信 等の 擧兵에 의하여 直時 平定되고, 王位는 良相 敬信에 의하여 相次繼承되었다. 良相(奈勿王 十代孫이라 함)은 즉 下代初의 宣德王이고, 敬信(奈勿王 十二世孫이라 함)은 곧 그 다음의 元聖王이었다.

그후 元聖王의 曾孫인 哀莊王도 아우 體明과 함께 叔父 彥昇(憲德王)에게 殺害되어 王位를 빼앗기었다. 그리하여 中央貴族社會의 腐敗는 直接間接으로 地方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中央에서 뜻을 못이룬 王族들이 지방에 雄據하여 亂을 일으키게 되어, 金憲憲父子의 亂, 興德王의 從弟 均貞과 從侄 梯隆과의 王位 繼承의 싸움, 梯隆이 勝利하여 僖康王이 되고, 僖康王은 金明의 反亂에 자살하고, 金明은 自立하여 閔哀王이 되고, 閔哀王은 金均貞의 아들 祐徵에게 살해되어 祐徵이 神武王이 되는 등 貴族社會의 腐敗와 紀綱의 紊亂, 그리고 地方勢力의 增大에 따른 지방의 叛亂 등이 잇달아, 地方對 中央의 對立的 경향 등은 마침내 羅末의 전국적인 動亂을 빚어낸 것이다.¹²⁾

그리하여 이제 六十餘人의 集團의인 도둑떼들이 생겨난 背景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新羅의 下代는 統一後 國土가 擴大되고 다스려야 할 異質의인 백성들이 많아졌는데도, 철저한 骨品制에 의한 貴族政治에만 依存하였기에, 血統 爲主의 骨品制 貴族政治는 오히려 새로운 歷史와 社會發展의 沮塞의 요인이 되어, 肥大해진 貴族들은 鬪合보다는 分裂을 일삼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政治的인 불안정 속에서 누구든지 힘을 길러 強大해지면 一躍 政權의 王座에 오를 수도 있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權力鬪爭의 惡循環이 되풀이 되었고, 이러한 渦中에서 필연적으로 生成되기 마련인 政治的인 慾望을 成就하려는 貴族이나, 骨品制로 인한 犧牲者인 六頭品以下 出身들의 社會에 대한 不平不滿, 腐敗한 社會에 대한 庶民들의 改革意志,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뭉쳐, 당시의 時代와 社會에 順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란 도둑이나 叛亂者 밖에는 될 수가 없

12) 前掲書 pp. 136~137 參照.

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지닌 新羅下代の 六十餘人の 大峴嶺 盜賊들이 어떠한 도둑떼들이었을까 하는 것이 問題이다.

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 이 盜賊들은 南岳(現 智異山)으로 가는 길목인 大峴嶺에 있었다는 것, 적지 않은 六十餘人の 집단이었다는 것, 「賊 窺聞其名 乃命作歌」로 보아 일찍부터 鄉歌를 잘 한다는 永才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無識大衆이 아니고, 도둑의 處地이면서도 鄉歌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무리들이라는 것, 그 노래에 그냥 感動할 수 있는 知性과 感性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 도둑들이면서도 오히려 비단 두 필을 바칠 정도로 험사리 盜心을 도둑맞아버리는 도둑들이었다는 것, 永才의 否定的 生의 肯定 앞에 자기들의 肯定的 生의 否定的 非理를 깨닫고, 모두 칼과 창을 버린 後 머리를 깎고, 永才의 제자가 되어 智異山에 들어가서, 다시는 世俗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行狀의 전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도둑떼들의 성격을 몇가지로 考究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들은 단순한 도둑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知性과 感性을 모두 갖춘 集團이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無慈悲하게 殺傷과 掠奪을 本業으로 삼는 도둑떼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대와 사회에 대한 不平不滿을 품고, 무엇인가의 慾求 充足의 방편으로서 도둑질을 하는 무리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단순한 鳥合之衆의 도둑떼들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절서문 지키는 集團이었을 것이다. 六十餘人の 多數人이 같은 生活, 같은 目的, 같은 行動을 할 때에는 必然코 거기에는 頭目格인 領導者가 自然發生的으로 推戴되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頭目を 중심으로 모여들었든지의 경우라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로 적어도 그 頭目は 단순한 經濟的인 窮乏이나 現世的인 貪慾을 성취하려는 의도에서라기 보다는 무엇인가 次元 높은 目標을 가지고, 집단을 一絲不亂하게 결속시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集團이었고 그러한

頭目들이었기에 鄉歌를 이해하고 즐겼으며, 作家에 대해서 일찌기 알고 있었으며, 鄉歌를 듣고는 감동할 줄 알았으며, 永才와의 對談에서는 生의 참모습을 쉽게 찾고 佛弟子가 될 수 있는, 도둑 아닌 도둑, 도둑답지 않은 도둑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지닌 도둑떼들이었기에 一然은 그들을 綠林君子라고 불렀을 것이다. 梁上君子¹³⁾라는 中國式 呼稱에 대하여 보다더 風流의 이고 淸純한 느낌마저 풍기는 그들의 호칭이 아닌가 생각한다. 無慈悲한 暴力의인 수단 방법으로 掠奪을 일삼는 도둑떼들의 印像이라기보다는 現實 否定과 現世 超脫의 方向으로 昇華시킨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佛敎의 背景과 釋永才

먼저 작자인 永才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釋永才」라 하였으니, 佛僧에 틀림이 없고, 性格은 「滑稽」 「不累於物」이라 하였으며, 그의 長拔로서는 「善鄉歌」이고, 시대는 元聖大王之世이며, 이때 나이는 「僅九十矣」로 되어 있는 것이 기록의 전부이다.

梁柱東教授는 “「永才」의 原名은 「길치」或은 「길재」. 「길」(永)은 「長命」의 義로 「耆婆·智大路」等 人名에 慣用되었으며, 「才」는 人名接尾語 「치」로도 읽히거나 近世人名用例는 「序次」의 義의 「재」(곧 吏文의 「第」로 慣用되었다.”¹⁴⁾라고 하여 「永才」란 이름을 純우리말로 「길치」 「길재」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遺事의 기록을 보면 「才臨刃無懼色」 「才笑而前謝曰」 「才年僅九十矣」等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才」를 人名接尾語의 「치」로나 또는 「序次」의 뜻인 「재」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第三十五代 景德王 十六年(西紀 757年)에 州郡縣의 이름을 모두 漢式으로 고친 史實로 보아,¹⁵⁾ 「永才」란 이름도 漢式名으로 「才」는 「재주

13) 後漢書 陳寔傳故事 參照.

14) 梁柱東, 古歌研究, p. 639.

15) 李丙祿, 國史大觀, p. 115 參照.

꾼」 「재주 부리는 사람」 등의 「재주」의 「才」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永才」란 이름 自體가 「총기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 타고난 素質의 사람」 또는 「妙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본다면, 「性滑稽」에 「不果於物」 하고, 「善鄉歌」하였다는 그의 人物評이 잘 理解될 것만 같다.

그리고 특히 留意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하고 많은 性品の 표현 中에서, 그것도 九十老僧의 성품을 「性滑稽」라고 한마디로 斷定지은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滑稽」라 하면 바로 「익살」¹⁶⁾이란 通하지만 本來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滑」은 「亂」 「稽」는 「同」인데 辯捷之人이 非를 말하되 亂처럼, 亂을 說하되 非처럼, 能亂同異한다는 것이다.”¹⁷⁾라는 說를 보면 알 수 있듯이 「滑稽」는 知識이 많아 如何한 難問題에도 窮함이 없이 滔滔하게 이것을 풀어나간다는 뜻이다. 오늘날 주로 諧謔의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史記 滑稽傳에서 연유한 것이고, 史記 梟里子傳에서는 조금도 諧謔의 뜻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滑稽」는 「뛰어난 智者」로 보아야 할 것이다. ‘滑稽之雄’¹⁸⁾이라는 말은 곧 「多智者」를 뜻했던 것이다.

이렇게 性品이 슬기롭고 財物에 얽매이지도 안했으며, 또 鄉歌에도 能하였다는 永才, 거기에 九十老僧의 老僧의 모습이 어떠하였을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老僧이 晩年에 南岳에 隱居하러 가는 모습을 想像해 본다. 九十老僧의 몸으로 한 사람의 從者도 없이 혼자 떠난 것으로 보아지는데, 평생을 佛道를 닦는데 專念했다면, 數많은 佛弟子들을 두었다면, 어찌 九十老僧이 가는 길에 從者가 따르지 않겠는가? 아마도 여기저기 마음 내키는대로 名山大刹들을 찾아다니는 修道僧이면서도, 오히려 風流를 더 즐기는 道僧으로서의 一生이었기에 性滑稽라 하였고, 「善鄉歌」의 名聲이 山間 僻地의 綠林菴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佛僧이면서도 佛敎의 敎理를 說破한다든지, 梵音

16) 새 한글사전, 한글학회의 지음

17) 史記, 滑稽

18) 漢書, 東方朔傳

이나 偈頌을 吟唱하지 않고, 鄉歌로써 賊徒들을 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遇賊歌가 직접적인 佛敎의 敎理 說法이나 偈頌의 내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賊徒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아 感動感化시킨 緣由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비록 형식은 鄉歌體이긴 하나, 그 노래의 基盤을 이루고 있는 精神世界는 佛敎의 드높은 信心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佛敎와, 특히 鄉歌文學에 미친 佛敎思想들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金聖培教授는 “永才의 遇賊歌는 彌勒淨土에의 발원을 노래한 불교가요인 듯하다.”¹⁹⁾라고 하였는데, 彌勒菩薩은 釋迦牟尼佛 入滅後 五十六億 七千萬年 후에 兜率天에서 人間世界로 下生하여 成佛하리라고 하는 未來佛이며 그의 國土는 龍華世界라 하는데, 이와 같은 彌勒信仰은 惡世를 淨化하고 理想의인 國土를 建設하며 統治하게 되리라는 것인데, 직접 도둑질을 하고 있는 賊徒들에게는 너무나 距離感이 있는 彌勒國土信仰의 發願이라고 보기보다는, 역시 佛敎의 종교적인 中心思想을 이루고 있는 보다더 庶民의이고 친밀감을 주었던 彌陀信仰; 誓願思想과 그리고 佛敎信仰의 諸種의 國土說 중 가장 模範的인 國土인 極樂國土의 來世觀에서 나온 淨土信仰이 이 노래의 중심사상이 아닌가 보고 싶다.

또한 金起東教授는,

菩薩이 成佛하기 위하여 要誓·希求한 誓願思想은 新羅歌謠인 廣德의 「願往生歌」에서 法藏菩薩의 四十八大願을 찾아 보았고, 均如大師의 「普賢行願歌」에서 普賢菩薩의 十大願을 찾아 보았는데, 菩薩의 誓願思想은 淨土思想과 直結되어 있음을 알았다……淨土思想은 바로 佛敎의 來世觀에서 나온 思想으로, 詩歌文學에서는 新羅歌謠인 「願往生歌·祭亡妹歌·普賢行願歌」등에서 찾아보았거니와, 그 가운데에서도 「願往生歌」를 佛敎의 淨土往生을 希求한 代表作品으로 보았다. ……佛敎의 宗教的인 効驗으로서의 靈驗思想은 詩歌文學에 있어서는 新羅歌謠인 「耐千手大悲歌」에서 觀世音菩薩의 靈驗을 보았으니, 三十三觀音의 하나인 千手千眼觀音菩薩에게 開眼을 發願한 靈驗이 나타나서 得名하

19) 金聖培, 韓國佛敎歌謠의 研究, 문양사, 1973, p. 35.

였던 것이다.²⁰⁾

라고 하여 新羅歌謠에 끼친 佛教思想을 誓願思想, 淨土思想, 靈驗思想의 세가지로 보고, 이들 思想의 影響을 받아 지어진 歌謠들로서는 「願往生歌, 普賢行願歌」가 誓願思想, 「願往生歌, 祭亡妹歌, 普賢行願歌」가 淨土思想, 「願千手大悲歌」가 靈驗思想의 影響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迴賊歌」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나로서는 新羅歌謠의 佛教系 歌謠에 迴賊歌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비단 僧侶의 作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迴賊歌야말로 釋永才의 誓願思想과 淨土思想이 노래로서 表現되고 행동으로써 顯示되어 도둑떼들을 感化시킨 대표적인 佛教歌謠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듣고, 그 행동을 본 그들이 당장에 感動하여 모두 창과 칼을 버린 후, 머리를 깎고 永才의 佛弟子가 되어 智異山에 들어가서 다투는 世上에 나오지 안했다는 것은, 直接的이고 直刻的인 靈驗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佛教의 宗教的인 効驗으로서의 靈驗思想이 나타나 있는 가요로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人間에게 큰 影響을 주는 佛教思想, 그것도 때를 지어 도둑질을 하던 六十餘人의 도둑떼들을 感化 感動시킨 佛教思想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彌陀信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新羅時代에 있어서 諸佛에 대한 信仰 中에서도 阿彌陀佛에의 信仰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신앙의 중심이 誓願思想인 것이다.

阿彌陀佛은 一切 衆生을 가련히 보고 大慈大悲한 마음으로 本願 곧 四十八願을 일으켰다. 本願이라는 것은 모든 佛陀가 過去世에 있어서 成佛하려는 所願을 가지고, 기어히 실현하려고 맹서하는 것을 말하고, 成佛하는 秘訣로는 願과 行이 있는데, 願은 이상을 실현하기로 誓願하는 것을

20) 金起東, 『國文學上的 佛教思想研究』, 遼陽文化社, 1973, pp. 149~150.

가리키고, 行은 誓願한 대로 실행하는 精進을 가리키는 것이다.

人間이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장래에 대한 希望과 所願을 가지고 살아간다.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어떠한 일을 기어코 成就하겠다 등의 꿈이 없는 사람이란 없는 것이다. 佛敎에 있어서 衆生을 위하여 佛法을 傳道하는 敎徒를 「菩薩」이라고 하는데, 이 菩薩들에게는 人生이란 苦海에서 呻吟하는 衆生을 濟度하려는 宗教的인 소망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誓願」인 것이다.

誓願思想은 佛敎文學을 가장 많이 남겨 놓은 新羅時代의 歌謠에서 제대로 찾아볼 수 있는데, 「願往生歌」에 나타나 있는 法藏菩薩의 四十八大願의 思想과 「普賢行願歌」에 나타나 있는 普賢菩薩의 十大願이 그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法藏菩薩은佛의 所請에 따라 그가 特別히 選擇한 四十八大願을 成就하고 나서 阿彌陀佛이 되었던 것인데, 그 四十八大願의 誓願 중 가장 중심이 되는 誓願은 第十八願인 「念佛往生願」으로서 彌陀信仰에 있어서 가장 중히 여기는 發願이라 하겠다. 四十八大願 중의 「王本願」이라 하여 古來로 여러 佛敎學者들에 의하여 신중히 해석되어 왔던 것이다.

阿彌陀佛은 過去佛도 아니요, 未來佛도 아니며, 現世佛이므로 現世의 衆生에게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淨土에 往生하고자 하는 사람은 間斷없이 「南無阿彌陀佛」을 念佛하면 된다는 것이다.²¹⁾

그러므로 「願往生歌」에 있어서 작자는 가장 誓願이 깊은 無量壽佛, 가장 慈悲로운 阿彌陀佛에게 두 손을 모아 “願往生 願往生”하면서 西方淨土 極樂世界에 계시는 無量壽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어 말라고, 西山으로 넘어가는 달을 보고 呼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景德王代의 月明師가 지은 「祭亡妹歌」도 彌陀信仰을 읊은 것이며, 여기의 選賊歌 또한 彌陀淨土에의 發願을 노래한 佛敎歌謠로 보아야 할 것이다.

彌陀信仰은 誓願思想이 중심이 되어 있고, 誓願思想의 중심은 「念佛往

21) 無量壽經, 卷上

生願'임을 알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인 目的은 西方淨土極樂世界에 往生 하겠다는 淨土信仰으로 發展되는 것인데, 遇賊歌의 內容은 이러한 信仰들 에 바탕을 둔 歌謠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淨土信仰에 대하여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人生苦에서의 解脫, 極樂淨土에의 往生은 어떠한 修行과 信仰生活이 필요한 것인가? 곧 極樂淨土에의 生因에 대하여 「無量壽經」을 보면 「如來淨土의 生因說」과 「衆生淨土의 生因說」로 大別하고 있다. 如來淨土의 生因은 菩薩이 淨土를 建設하려고, 發願하고 實踐 修行할 方法이며, 衆生淨土의 生因은 菩薩들에 의하여 設定되어 있는 淨土에 往生하려고 실천수행 할 方法을 말하는 것이다.

「如來淨土의 生因說」²²⁾은 阿彌陀佛이 아직 因行者로서의 法鼓菩薩로 있을 때에, 世自在王佛에게 가서 二百十億 諸佛의 國土를 求索하고 그 여러 國土 가운데에서 選美取善하여 자기도 淨土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決心 하고는 四十八種의 誓願과 三種의 大願을 발하여, 善人과 賢者는 물론이요, 惡人과 愚者 가릴 것 없이 모든 衆生이 다만 나의 願力의 不可思議를 듣고 믿기만한다면, 반드시 濟度하여 極樂에 往生케 하려니와 만일 그 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는 決코 成佛하지 않겠다고 要誓하고는, 永劫의 修行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 如來淨土의 生因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衆生淨土의 生因」에 대하여서는 「般舟三昧經」을 비롯하여 「阿彌陀經」「無量壽經」「觀無量壽經」等 淨土三部經에 詳說되어 있는데, 「念佛生因說」「聞名生因說」「稱名生因說」등등이 있다.²³⁾

「念佛生因說」이란 阿彌陀佛 등 佛名을 思惟하고 憶念함으로써 淨土에 往生할 수 있다고 說하는 方法으로서, 淨土往生の 實踐修行으로는 가장 강조되고, 또한 가장 널리 행하여진 要法이다. 이러한 念佛觀이 淨土往生の 가장 빠르고 쉬운 修行法으로 採用된 것은 大乘佛敎가 勃興한 以後로,

22) 同上

23) 植原祐藏, 淨土三部經講義, 參照.

『諸經』의 念佛法으로써 淨土의 生因을 삼고 있으며, 「念佛往生願」이 念佛信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聞名生因說」²⁴⁾은 阿彌陀佛의 名號를 聞信함으로써 淨土에 往生할 수 있다는 것이니 「念佛往生願」과 더불어 淨土生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셋째 「稱名生因說」²⁵⁾은 阿彌陀佛의 名號를 稱呼함으로써 淨土의 生因을 삼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阿彌陀經」等 同系의 諸經에는 極樂淨土에 往生하려는 衆生에게는 上, 中, 下 三輩의 구별이 있는데, 三輩의 修行法이 各異하다고 하였다. 「無量壽經」에 의하면,

佛告阿難 十方世界 諸天人民 其有至心 願生彼國 凡有三輩

라고 하여 「上輩往生」은 家族을 버리고 欲望을 끊고 沙門이 되어 菩提心을 발하여 無量壽佛을 念하고 여러가지 功德을 修行하면, 佛의 來迎을 만나 往生할 수 있다고 하였고, 「中輩往生」은 上輩者와 같이 沙門이 되어 諸修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菩提心을 발하여 一心으로 無量壽佛을 念하고, 다소의 善行을 닦아 齋戒를 지키며, 塔像을 建立하고 沙門을 供養하며, 佛前에 天蓋를 걸거나 燈明을 바치거나, 散花 燒香하거나 하면서 極樂에 往生하기를 發願한다면 命終에 無量壽佛의 化身이 來迎한다고 하였으며, 「下輩往生」은 上輩者나 中輩者와 같은 諸功德은 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自力으로 菩提心을 발하여 無量壽佛을 念하면, 命終에 夢中과 같이 無量壽佛의 化身으로 往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觀無量壽經」을 보면 上述한 三輩에 各各 또한 上, 中, 下 三品の 不同이 있다고 하여 總 九品으로 分類하고는, 各 九品の 淨土生因을 說해 놓기도 하였다.

요는 極樂淨土의 生因의 핵심은 「念佛往生」이었고, 古今을 通한 彌陀信

24) 無量壽經, 卷下.

25) 阿彌陀經

16)…東岳語文叢集 第十七篇

仰이 있어서의 念佛三昧의 修行法은 印度를 비롯한 中國 韓國 日本 등 일
관된 念佛思想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選賊歌는 이렇게 容易한 濟度의 길, 極樂往生의 所望이 엿보
이는 淨土信仰이 바탕이 되어 읊어진 것이기에 그들을 그렇게 쉽게 感化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Ⅲ 結 論

1. 選賊歌 背景의 概要

選賊歌의 時代的 배경을 社會的인 側面과 佛敎的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
다.

六十餘人의 賊徒들이 살았었던 新羅의 衰退期에 屬하는 下代의 政治的
社會的인 背景은 한마디로 貴族의 跋扈, 黨爭의 弊習이 생기어 王位 爭奪
을 증심으로 陰謀 叛逆 骨肉相殘의 亂이 그치지 아니한 때였다. 이러한
社會에 대한 不平不滿, 改革意志들이 싹 터, 當時의 時代와 社會에 順應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절을 수 있는 길이란, 도둑이나 叛亂者 밖에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임을 살펴 보았다.

도둑들이면서도 쉽사리 盜心을 도둑맞아버리는 도둑들이었다는 사실에
서,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도둑들이 아니고, 知性과 感性을 고루 갖춘 集團,
組織的인 集團으로서, 現世的인 貪慾만을 成就하려는 意圖에서라기 보
다는 무엇인가 次元 높은 목표를 지닌 도둑 아닌 도둑 도둑잡지 않은 도
둑들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一然은 그들을 綠林菴子라고 불
렀는데, 그것은 그들을 無慈悲한 暴力的인 수단방법으로 掠奪을 일삼는
도둑떼들로 보기보다는 現實 否定과 現世超脫의 方向으로 昇華시킨 것으

로 보아지는 것이다.

또한 選賊歌가 직접적인 佛敎의 敎理 說法이나 偈頌의 내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賊徒들의 마음을 크게 사르잡아 感動 感化시킨 緣由는, 비록 형성은 鄉歌體이면서도 그 노래의 基盤을 이루고 있는 精神世界는 佛敎의 드높은 信心이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미친 佛敎信仰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新羅時代에 있어서 諸佛에 대한 信仰 중에서도 阿彌陀佛에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신앙의 중심이 誓願思想이었으며, 그 중 가장 中心이 되는 誓願이 「念佛往生願」이라는 「王本願」임을 알 수 있는데, 窮極의 인 목적이 西方淨土極樂世界에 往生하겠다는 淨土信仰으로 發展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選賊歌를 彌陀信仰과 淨土信仰이 노래로써 표현되고 행동으로서 顯示되어 도둑떼들을 感化시킨 대표적인 佛敎歌謠로 보았다.

2. 選賊歌 背景의 特徵

九十老僧의 釋永才는 ‘性滑稽’에 ‘不累於物’하고 ‘善鄉歌’하였다는 人物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性品이 술기롭고 財物에 얽매이지도 안했으며, 또 鄉歌에도 能하였다는 九十老僧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인가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여기저기 마을 내키는대로 名山大刹들을 찾아다니는 修道僧이면서도, 오히려 風流를 더 즐기는 道僧으로서의 面貌가 歷然하다.

이러한 老僧과 山中에서 對峙한 賊徒, 現世의 모든 利慾을 떠나 來世의 生을 바라는 老僧과 現世의인 모든 利慾에 사르잡혀 인간으로서는 最惡의 惡業인 도둑질을, 그것도 떼를 지어 犯行하고 있는 賊徒들 사이에서 그들을 모두 佛弟子로 삼을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 選賊歌인 것이다.

비록 賊徒들의 청을 받아 부른 노래이긴 하나, 老僧 永才가 직접적으로

佛敎의 敎理를 說破한다든지, 佛心을 강요하는 表現을 避하고, 脫俗歸山하는 自身의 心像과 決意를 보이면서, 그릇된 破戒主들의 非行과 誘惑을 一笑에 부치며 오히려 그들을 憐愍하는 老僧의 信心이 그들의 罪에 罰됨을 받으면 조은 날이 고대세리라는 來世의 삶을 알리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첫번째 戒律인 「不殺生」마저 여기는 惡業을 加重하는 일이될까 걱정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佛心을 은근히 일으킨 것으로 보아진다.

여기에 賊徒들의 마음의 動搖, 곧 佛心의 發動이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賊徒들이 도둑이면서도 惡業往生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고 스스로 懷疑에 빠졌을 때, 永才는 深奧한 佛敎의 思想이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平易한 敎理, 누구나가 信奉할 수 있는 信仰의 世界를 顯示해 주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敎理, 그러한 신앙이 다름아닌 전술한 彌陀信仰의 念佛往生願이며, 淨土信仰의 念佛生因說 聞名生因說 稱名生因說 등이었을 것이다.

勿論 여기의 賊徒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도둑잡지 않은 도둑, 次元 높은 어떤 목표에 뭉쳐진 집단이었다 하더라도, 五波 八戒 十戒 등에서 두 번째로 指摘하는 「不偷盜」「不與取」의 惡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로서의 煩惱가 컸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不惡往生은 할 수 있다는 淨土信仰의 信心이 다짐내 발동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遲賊歌가 후래 혼란한 新羅下代의 社會的인 背景 속에서 독머섯 처럼 자란 賊徒들이 대중적이고 親近味가 있는 佛敎의 彌陀信仰, 淨土信仰의 化身이라고 볼 수 있는 永才에게 사트잡히게 되었다는 特徵을 찾아 볼수 있을 것이다.